

글로벌 자동차시장 내년에도 '흐림'

현대차 글로벌연구소 보고서 0.4% 증가...SUV 인기는 계속 미래차 투자 속도 조절 분위기

내년에도 세계 자동차시장의 정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올해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5% 감소한데 반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0.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시장은 올해 3.6% 줄면서 2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내년에는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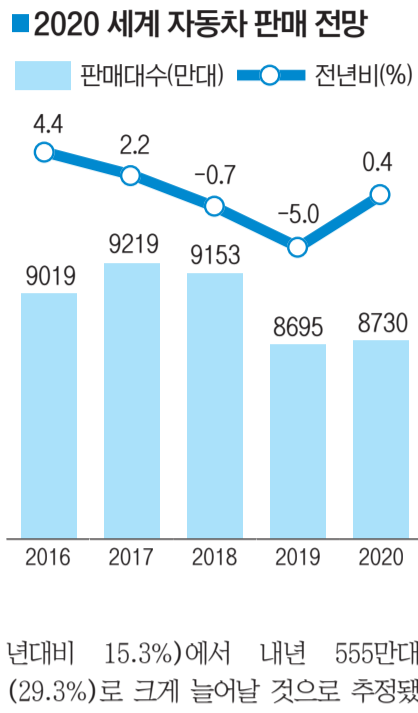
30일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이보성 소장은 "2020 글로벌 자동차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자동차 판매는 올해 8695만대로 떨어졌고, 내년에도 8730만대(+0.4%)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글로벌 자동차시장은 브라질을 제외한 중국, 인도, 중동, 미국, 서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 판매가 정체 또는 역성장 보였다. 내년에는 중국, 인도, 아세안, 브라질 시장의 호조가 예상되지만, 미국·서유럽 등 핵심시장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돼 판매 증가세는 0.4%에 그칠 전망이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인기는 계속되고, 비중도 올해 35.6%에서 내년 36.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 속도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급차 판매는 중국 등 신흥시장에서 늘면서 올해 1027만대(0.6%)에서 내년 1056만대(2.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급차에서 SUV 비중은 44%로 확대되고 있다.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전동차(친환경차) 판매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동차 판매는 올해 429만대(전



다. 중국에서는 신에너지차량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지만, 유럽은 환경규제가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은 올해는 수입차 공급 차질과 주요 모델 노후화, 소비심리 부진으로 작년보다 3.6% 적은 175만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내년엔 신차 출시가 이어지며 177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며 올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판매가 줄 것으로 예상됐다. 신차 가격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이 중고차에 관심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올해 10.9%나 감소했지만 내년엔 3.9% 늘어내며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인도는 올해 당초 장밋빛 기대와 달리 금융 경색 여파에 -13.5%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엔 4.0% 증가가 예상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소비자 3명 중 2명 "생애 첫 차로 중고차 선호"

케이카 조사...67.5% 답해

자동차 소비자들은 '생애 첫 차'로 새 차보다는 중고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미숙과 경제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중고차기업 K-Car(케이카)에 따르면 최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두근 두근 내 인생 첫 차'를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5%가 첫 차로 '중고차'를 선택했다.

첫 차로 중고차를 고르는 이유는 '운전 미숙'과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운전 실력이 미숙해 연수 목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부모님 차를 물려받아 돈을 아낄 계획' 등 중고차 선호 이유를 밝혔다.

반면, 신차를 선택한 32.5%는 '고장 없이 오래 타고 싶어서', '사고·고장 등 중고차 살 때는 고려해야 될 게 많아' 등의 이유를 들었다.

'첫 차로 사고 싶은 차종'을 묻는 질문



에는 33.8%가 중형 세단을 선택,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최근 가장 핫한 키워드인 소형SUV(30.6%)가 2위, 부담 없는 가격과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차(24.2%)가 3위를 차지했다.

첫 차가 가장 필요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취업'이 56.7%로 응답자 절반 이상의 선택을 받았으며, 이어 '결혼'(16.9%), '출산'(13.7%) 순이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벤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더 뉴 S 560e' 출시

고효율 배터리 시스템 탑재 에어컨·히터 엔진 꺼나도 작동

메르세데스-벤츠는 S클래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S 560 e'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차량 인도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S-클래스는 긴 휠베이스에 의한 장엄한 외관과 안락한 실내 공간, 혁신적인 서스펜션 시스템, 뛰어난 연비, 안전성, 환경 친화성 등 다양한 혁신 기술들을 새롭게 선보이며 메르세데스-벤츠의 상징적 모델로 자리잡았다. 이번 '더 뉴 S 560 e'는 3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더 뉴 S 560 e'는 367마력의 V6 가솔린 엔진에 122마력의 전기 출력을 추가 지원해 더욱 강인해졌다.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이 대폭 늘어난 순수 전기 모드 기준으로 주행 가능 거리가 최대 31km(국내



·유럽 기준 50km)에 이른다. 다임러 그룹의 자회사인 도이치 어큐모티브에서 생산한 고효율 배터리 시스템이 탑재됐다. 7.4kW 용량의 수냉식 은보드 충전기는 메르세데스-벤츠 월박스 기준 배터리를 10%에서 100%까지 약 1.5시간 내에 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준 가용 충전 용량에서는 6시간 정도면 동일

한 양을 충전할 수 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8년 혹은 16만km 주행거리까지 보증 서비스가 제공된다.

에어컨·히터 등 공조장치는 엔진을 꺼나도 작동돼 여름은 물론 겨울에도 배터리를 통해 하차 전 설정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더 뉴 S 560 e'는 '하이브리드'(최적 연료 효율), 'E-모드'(순수 전기 주행), 'E-세이브'(전기 절약), '충전' 등 네가지 드라이빙 모드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과 다섯가지의 주행 프로그램의 다양한 조합을 제공한다. 운전자는 전기 모터와 엔진을 함께 사용할지, 가솔린 엔진만으로 주행할지 등 드라이빙 모드를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2억200만원이다.

·유럽 기준 50km)에 이른다. 다임러 그룹의 자회사인 도이치 어큐모티브에서 생산한 고효율 배터리 시스템이 탑재됐다. 7.4kW 용량의 수냉식 은보드 충전기는 메르세데스-벤츠 월박스 기준 배터리를 10%에서 100%까지 약 1.5시간 내에 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준 가용 충전 용량에서는 6시간 정도면 동일

한 양을 충전할 수 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8년 혹은 16만km 주행거리까지 보증 서비스가 제공된다.

에어컨·히터 등 공조장치는 엔진을 꺼나도 작동돼 여름은 물론 겨울에도 배터리를 통해 하차 전 설정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더 뉴 S 560 e'는 '하이브리드'(최적 연료 효율), 'E-모드'(순수 전기 주행), 'E-세이브'(전기 절약), '충전' 등 네가지 드라이빙 모드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과 다섯가지의 주행 프로그램의 다양한 조합을 제공한다. 운전자는 전기 모터와 엔진을 함께 사용할지, 가솔린 엔진만으로 주행할지 등 드라이빙 모드를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2억200만원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차, 렌터카업체와 손잡고 자동차 공유시장 진출

현대차그룹이 렌터카업체들과 손잡고 차량 공유 시장에 뛰어든다. 다만, 쏘카와 같이 카셰어링에 직접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렌터카업체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차량 통진 단말기'와 '관리 소프트웨어·앱'을 판매하는 사업 모델이다.

30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모빌리티 전문기업 '모션'을 설립하고, 첫 행보로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미래 모빌리티 사업 협력

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단체는 전국 16개 지역렌터카사업조합 산하 총 1117개 렌터카업체(보유 렌터카 총 93만대)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자체 개발한 렌터카 통합관리시스템 '모션 스마트 솔루션'과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렌터카연합회에 제공하고, 연합회는 회원사에 해당 서비스를 홍보하는 등 협업하기로 했다. '모션 스마트 솔루션'은 첨단 사물인터넷(IoT)이 적용된 단말기와 관리 시스템



현대차그룹은 최근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미래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차량 공유시장 상생혁신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현대차그룹 제공>

을 기반으로 렌터카업체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통합 솔루션이다. 먼저 통신형 단말기를 차량에 설치하면 차량 위치, 운행 경로, 누적거리 등 기본 정보 외에도 연료 잔량, 타이어 공기압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원격으로 문을 잠그거나 열 수도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마세라티 '새해맞이 포춘 쿠키 이벤트'

광주 등 전국 10개 전시장

이탈리안 럭셔리 마세라티가 2020년 새해를 맞아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0개 전시장에서 '마세라티 포춘 쿠키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전시장 방문·시승한 고객에게 올해 운세를 점쳐볼 수 있는 포춘 쿠키를 증정한다. 쿠키 안 메시지에 따라 골프백, 하드 파우치, 텀블러, 우산, 모넬가 등 다양한 마세라티 상품을 선물로 제공한다. 새해에 맞이하게 될 행운을 살펴볼 수 있는 타로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시장 방문과 사전 시승 예약 고객에게 겨울철 안전을 책임지는 마세라티 Q4



마세라티 새해맞이 포춘 쿠키 이벤트

모넬을 포함해 전 차종을 시승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중소형 경유차 배출 허용기준 내달부터 EU수준 강화

환경부 대기환경법 개정안 공포

환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총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했다.

적용 대상은 2017년 9월 이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경유 자동차부터다. 이는 2015년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처벌 심리 시점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을 통과했던 경유차들이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도

록 제조사가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당시 실제 시험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를 실도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삼아 2020년 1월부터 1.5배(0.12g/km) 이내로 배출량을 낮추기로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1.5배 이내 제한 규정을 5% 더 낮춰 1.43배(0.114g/km)로 바꾼 것이다.

유럽연합(EU)도 내년 1월부터 유로6d를 적용, 실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을 0.120g/km로 정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hi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 Classic | Mediterranean Sea

클래식 타일
지중해 스타일